

해수욕장 명당 독점... '알박기 캠핑카' 눈살

도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반복 시민들 "명당자리 수 주째 차지... 주차공간 부족" 주차장법상 한 달 이상 주차 입증돼야 행정 조치

무사마심 해수욕장 캠핑카 장기 주차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며 해수욕장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알박기 캠핑카'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주차장 내에 캠핑카 약 6대가 주차돼 있었다. 렌터카 등 해수욕장을 찾은 차량들은 주차 자리가 없어 도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일부 캠핑카들이 해변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야영장에서는 텐트를 일주일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공공 해변 주차

장은 카라반들이 수 주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금능해수욕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인데 특정인들이 장기간 독점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림읍사무소도 유사한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차장법상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주차한 사실이 입증돼야 행정에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피서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림읍 관계자는 "캠핑카 장기주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만 한 달 이상 주차를 해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게끔 민원 접수 시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알박기 캠핑카 문제는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쯤 찾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매표지에는 캠핑카 약 30대가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이 중에는 오랜 기간 그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사진 위). 공영주차장이 만석인 가운데 캠핑카 6대가 주차돼 있었다. 사진 아래는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매표지. 캠핑카 약 30대와 관광버스, 선박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자리에 방치된 듯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차체가 녹슨 차량들도 보였다.

이호테우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행정의 개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테우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

문에 장기주차된 차량들이 토지주 허락만 받으면 행정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바로 옆 도로 위에 두 달 이상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확인 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지방세 시스템 중단... 자동차세 납기일 연장 내달 3일까지... 제주도, 6월 정기분 246억원 부과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중단에 따라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7월 1일(수)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수납이 일시 중지되고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늦춰진다.

제주시는 고지서 안내란과 알림

톡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중단 기간과 납기연장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 외에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가 부과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198억원과 지방교육세 48억원 등 총 246억원이다. 위영석기자

역대급 더위 예고... 온열질환 주의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486명 발생·1명 사망 제주소방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등 중요"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제주지역에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1년 65명, 2022년 93명, 2023년 98명, 2024년 123명, 2025년 107명 등 총 486명이 발생했으며 전국의 3.5%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자는 1명(2024년)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60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120명(24.7%), 열실신 47명(9.7%), 열사병 43명(8.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170명(35.0%), 논·밭 108명(22.2%), 길가 35명(7.2%) 등으로 전체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직업별로는 농어업 종사자(114명·23.5%), 연령별로는 50대(145명·29.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사고의 45.6%(221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남성 환자 비율은 80.2%(399명)로 여성(19.8%, 87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제주의 폭염일수는 2021년 3.8일, 2022년 9.3일, 2023년 6.5일, 2024년 21.3일, 지난해 17.8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되면 각각 내려진다. 이번엔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일자로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32개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물품을 비치하고 구급차량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8대의 펌블런스 예비출동대를 편성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 폭염 관련 의뢰상담과 응급처치 안내를 강화하고 도민 접점 매체를 활용한 예방 홍보를 확대해 온열질환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서 방침이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여름철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 작업장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는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2026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일 한라중·중앙중·제주동중

2026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한라중학교와 제주중앙중학교, 제주동중학교에서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17개 직렬 459명 선발에 2102명이 지원해 평균 4.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9급이 172

명 모집에 1033명이 지원해 6.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산 9급은 3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주도는 응시자들에게 시험장 위치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6일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면접시험 미응시자와 중도 포기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오는 21일까지 접수

제주대학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가 '2026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과 대학생,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다.

교육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초급전문가의 이해 및 ODA 개념 ▷수업원조 프로젝트 발굴과 선정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인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해외현장체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대학교 학생은 비교과 마일리지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064-754-82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선착순 대할인 이벤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 흔적 전혀 주입!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경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품,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르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굴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굴묘목(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감굴 ● 하굴(아나마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드묘목 생크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